

2023 대림 성탄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대림 시기와 더불어 전례적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에서 다음 해로 건너가는 이 중요한 순간에 교회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현실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깊이있게 살아내기 위하여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치들을 되돌아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초대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금년 대림 제 1 주일에 우리가 듣는 부르심은 깨어 있으라고, 주님의 오심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라고 권고합니다. 나태함과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그분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라고 권고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권고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 바오로 6 세 교황님은 사도적 권고 “마리아 공경”에서 성모님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 있고... 찬미하며 기뻐하는” 준비의 모델로 제시합니다(4 항 참조).

성모님은 대림과 성탄에 특별히 중요한 인물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할 그 이유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가장 바랐던 것, 메시아의 탄생, 가난한 문간방에서 육이 되신 말씀은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을, 성모님이 말씀을 듣는 이, 기도하는 동정녀, 풍요로운 어머니가 되게 했던 덕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모님의 믿음, 성모님의 희망, 성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믿음.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자신의 삶 안에 받아들입니다. 천사의 말이 당황스러웠어도,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을 열어 놓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성모님과 함께 계셨고 성모님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굳은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갔고, 이집트로 피신했고, 십자가 아래 있었고 모든 이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기에, 자신 안에서 그리고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알아봅니다. 대림 시기는, 우리 하느님이 충실하시며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물러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매일 우리의 믿음을 정화하고 굳세게 하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을, 우리 시대에 그분의 구원 활동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시는 하느님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역사의 오늘 안에서 하느님의 업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 성모님은 희망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의 하느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향구하고 능동적인 희망을 사셨습니다. 말씀이 아홉 달 동안 당신의 태중에서 육화하시는 것을 받아들여 하느님 약속의 실현에 협력하셨으며, 이를 당신의 온 존재로, 당신의 몸과 피로, 정신과 마음으로, 일과 휴식으로 행하셨습니다. 대림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실현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희망을 되살릴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전쟁들로 상처입은 우리의 세상 안에서, 새로운 희망은 주님의 길을 계속 찾아 가도록 정신을 굳세게 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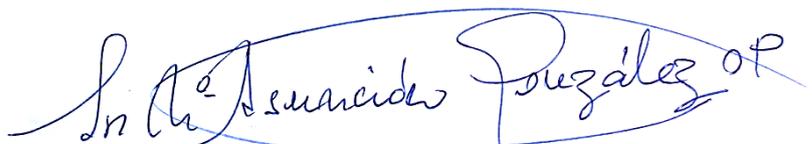
베네딕토 16 세 교황님은 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서, 희망을 배우고 훈련하는 “장소들”을 제시하십니다. 그 첫째이고 핵심적인 장소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과 내밀하고 인격적인 대화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가까이에 실재하심을 체험합니다. 기도 안에서 주님과 자주 만나는 것은 우리의 희망에 활기를 주고 그 희망을 새롭게 해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며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경청하지 않을 때에도 하느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아무하고도 말을 할 수 없을 때, 언제나 나는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 줄 사람이 없을 때 –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필요나 기대에서 – 그분은 나를 도울 수 있으십니다(32 항).

사랑. 성모님은 사랑의 여인이십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며,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나이가 많고 임신한 사촌 엘리사벳을 돕고,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며, 당신의 모성적 현존으로 다락방에서 사도들을 지지해 주시고, 성령이 오시기를 청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말하듯이 “사랑은 마음 안에 갇힌 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림과 성탄은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밖으로 나가도록 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2023 년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담화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가난한 이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얼굴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얼굴을 뵈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피부색도, 사회 계층도, 출신도 무관합니다. 나 자신이 가난할 때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안녕을 지키려는 무관심과 빠른 핑계를 떨쳐버리고 모든 가난한 이와 모든 형태의 가난을 알아보라고 부름받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어, 우리가 성탄에 가까이 가면서 표면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믿음, 희망, 사랑이 성장하도록 노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오셨고 우리 안에 당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기쁨, 평화,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기를 위해서 다시 오고자 하시는 그분께 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기쁜 대림과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적인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총장 M^a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